

평양시장에 '도매반' 설치·운영

1. 개요

- 조선신보는 금년 4월부터 평양 통일시장에 '도매반'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보도하였음.(9.7)

2. 보도요지

- 금년 4월부터 통일시장내에서 '도매반'이 설치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국영기업소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정가격 혹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, 판매하고 있음.

- 취급 품목은 주로 찻술·치약, 기름, 사탕, 소금 등 대중 소비품을 기본으로 하며
- 현재 36명의 종업원 중 8명이 '도매반'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음.

※ 평양시지 지체다다지는 이번 '도매반' 설치에 대해 "기대적이지는 않지만, 통일시장을 확대·운영해 나갈 것을 구상하고 있다"고 밝힘.

3. 분석

- 북한은 '03.3 부터 종합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해 왔으며
- 평양시내에 40여개의 종합시장을 비롯, 북한 전역에 총 300여개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상업유통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음.

○ 시장가격은 '일정한도'(기준가격의 5~10%범위내)내에서 수급(需給)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나

※ 쌀·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 상품의 가격한도를 설정(한도가격), 상품 수요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, 적정가격을 산출('03.12.22, 조선신보)

- 물자의 공급부족으로 국정가격과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가 커지는 등 인플레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임.

○ 이번 북한의 '도매반' 설치·운영은

- 7.1조치 이후,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 심화로 시장에서의 '한도가격'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

- 가격안정을 위해 '시험적·과도기적'으로 취해진 조치로서

- 법적·행정적 규제가 아닌 도매반·소매상간의 가격 차이 조정을 통해 시장가격 인하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.

○ 이번 조치는 시장 관리기구가 상품유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

- '도매반'의 취급품목이 식량 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 제외된 단순 소비재 위주의 일부 품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

- 구조적인 물자공급 부족에 기인한 물가 상승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.